

서울스포츠 걸

SPORTS
SEOUL
CULTURE

2024 01+02 No.387



yes:/w

#

해시태그 이벤트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로 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2.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3. 서울시체육회 SNS를 팔로우한다. ▶ 인스타그램: @seoul_sports_council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Contents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이준성 연세대학교 교수
편집 황영찬 홍보마케팅사업단장
 홍보팀 윤영하,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콤포터노벨리(주)
표지일러스트 윤예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4 2024 신년인사

06 스포츠 웨이브

스포츠 '평등'으로 통하다

- 1 2024 파리 올림픽이 말하는 스포츠의 가치
- 2 '스포츠' 동행, 매력 특별시 SEOUL
- 3 스포츠 가치 실현에 나선 기업들

16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미래, 오! 그레이트 한강

26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중국에서 온 웨메이의
서울 피겨스케이팅

30 School Of Sports, SOS!

축구의 새로운 발견
서울재동초등학교 한가형 교사

34 變變 스포츠

스포츠 관람, '체험을 위한 여정의 문화'로

36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탁구리그 넘버원, 팀 원재현은 강하다
탁구 동호회 원재현

40 스포츠는 지금

평창의 유산, 다음 세대로 이어지다

42 글로벌 스포츠 현장

국제 스포츠계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

44 아무튼 스포츠

현실 세계로 나온
진짜 같은 가상 인간들

46 생생스포츠

2023-2024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50 자치구체육회 탐방

스포츠 선진구로 향하는 출발선에 서다
도봉구체육회 박상용 회장

52 SSC 뉴스+SSAD 뉴스

62 회원종목단체장 인터뷰

서울특별시빙상연맹 박정상 회장

63 지그재그 낱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2024년에도 스포츠로 함께 행복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갑진년의 청량한 기운이 여러분이 계신 곳을 비취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용의 기운과 함께 2024년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를 출범하면서 ‘스포츠도 경영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를 경영하는 마인드입니다.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가치도 따라오게 됩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스포츠를 넘어 즐거움과 흥이 가득한 스포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세계 속의 스포츠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다른 국적과 인종의 체육인이 서울에 모여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서울이란 도시가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과 소통하며 스포츠를 겨룰 수 있는 멋진 경험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시끌벅적한 도시, 서울의 성장력을 담보할 것입니다. 서울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스포츠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산,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에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스포츠 ESG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고통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해 온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성숙한 자아를 통해 지구와 인류가 모두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스포츠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믿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땀으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함께 발맞춰 걷는 것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은 앞서겠다는 마음보다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함께 나아가고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24년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강태선 드림



서울특별시체육회
SEOUL SPORTS COUNCIL - SPORT LEADER





스포츠, ‘평등’으로 통하다

승패에 연연하고 도전과 경쟁에 심취하기만 한 스포츠는 이제 없다.
서로가 가진 가능성에 열띤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용기를 북돋우며 협력해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스포츠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로 보는 스포츠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2024년 여름에 앞두고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과
서울특별시의 스포츠 정책을 알아본다.

2024 파리 올림픽이 말하는 스포츠의 가치

2024년 여름,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건 슬로건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2024 파리, 완전한 ‘성평등’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이 완전한 성평등 올림픽(Perfect Gender Equality)을 전면에 내세웠다. 32개의 정식 종목 가운데 28개 종목에 남녀 같은 인원이 출전하고, 레슬링(남 192명, 여 96명)과 축구(남 288명, 여 216명)는 남자 선수가, 체조(여 206명, 남 112명)와 수영(여 722명, 남 648명)은 여자 선수가 더 많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부 8체급, 여자부 6체급으로 개최했던 복싱은 이번에 남녀 동일한 7체급으로 조정했다.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자부 경기를 축소하고 여자부 체급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녀 선수 각각

5250명이 참가하며 완벽한 수적 균형을 달성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의사결정기구의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IOC 집행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IOC 위원 107명 가운데 37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여성 리더십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지난 한 세기, 여성 스포츠의 역사는 편견과 맞서 싸운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여성 스포츠, 배제와 도전의 역사
“여성의 스포츠 참가는 부적합하다. 격렬한 신체 활동이 여성의 매력을 파괴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의 말이다. 지금이라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을 받겠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리 특별한 주장도 아니었다. 19세기는 의과학의 발달과 함께 남녀의 신체적 차이의 구별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내분비계 호르몬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막연했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 됐다. 자연적 차이는 차별의 근거로 발전하는데 남성에게 근육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지만 여성의 근육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발달한 여성은 매력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가 약하고 스포츠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평가는 이중적이었다. 수많은 여성이 산업 현장의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힘든 가사노동까지 도맡았기에 노동력으로서 여성의 근육은 얼마든지 가치를 지녔다. 차별과 편견의 시대,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열정을 뽐내는 건 남성 부르주아에게 적합한 일이었을 뿐 제2의 성인 여성의 몫이 아니었던 셈이다. 1896년 제1회 올림픽에는 단 한 명의 여자 선수도 참가할 수 없었다.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테니스와 골프 2개에서 여성 종목이 열렸다. 테니스와 골프는 그나마 20세기 초 상류계급의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 참여가 이뤄진 스포츠였는데 그마저도 몸을 꼭 죄는 코르셋에, 발목까지 덮는 긴 치마와 긴 팔 블라우스를 착용해



수잔 랭글렌은 여자 테니스를 지배했던 선수이자 ‘캐주얼 패션’이라는 개념을 붙인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야 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는 여자 수영 및 다이빙이 도입됐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성이 몸매가 드러나고 속이 비치는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올림픽에 여자 수영 경기가 생기면 다음엔 투표권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악했다. 그럼에도 진보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 밖에서 나오자마자 두꺼운 가운을 입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여자 수영은 올림픽에 포함될 수 있었다. 1920년대에 이르자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을 패션을 통해 표출하는 여자 선수들이 등장했다.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수잔 랭글렌(Suzanne Lenglen)은 무릎길이의 주름치마와 민소매, 밴드 스타킹과 머리띠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했다. 그녀의 패션에 남성 팬들은 열광했지만 그녀는 그저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편한 복장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했다. 여성 대중은 진보의 표현으로 수잔의 복장을 따라 했고 당시 수잔의 패션은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이후에도 짧은 치마, 반바지, 스판덱스, 레깅스까지 더 편하고 멋진 옷들은 대부분 여성 스포츠 선수들을 통

“
지난 한 세기, 여성 스포츠의 역사는 편견과 맞서 싸운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

해 대중에게 전해졌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움’과 ‘강함’은 상충하는 가치였지만 여자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강하고 거칠었다. 여자 선수들은 스포츠를 통해 ‘아름다움’과 ‘강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섹시한 여자 선수가 미디어와 남성 대중에게 특별히 주목받는 현상에 대해 남성의 동기와 시선에 대한 여성 신체의 대상화, 주변화란 비판이 있지만 여성들은 더 자유롭고 편히 경기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스포츠에 참가할 뿐이라고 얘기한다. 냉전 이후 국가주의 시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스포츠에서의 대결은 세계 열강이 여성 엘리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세계의 열강들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여성을 동원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은 물론이고 자유 진영의 국가들도 여성 엘리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됐고 여성의 신체 능력을 한계 짓던 기존의 관념을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다. 비록 당시 여성 스포츠의 발전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성 자원을 동원한 비자발적이고 여성의 주체성이나 양성평등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주의 시대 여성 스포츠가 선수들이 능력과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여성 선수들의 성과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거의 모든 종목이 여성에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도 있었는데 근육을 뽐내는 보디빌딩, 극한의 지구력이 필요한 마라톤, 격투 스포츠인 레슬링과 복싱 등은 여전히 도전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 스포츠들은 오랫동안 남성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기에 여성의 참가는 훨씬 더 큰 희생과 도전을 필요로 했다.

1967년 캐서린 스위처(Katherine Switzer)가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며 여성이 3000m 이상 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학적 편견을 깨뜨렸지만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84년이였다. 여성 격투가와 보디빌더들은 또

다른 측면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종종 ‘남자 같다’란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주먹을 주고받고, 뒤엎켜 싸울 때 남성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동성애 혐오와 같은 부당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이 금기의 영역에 도전했던 여성 선수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격투가와 보디빌더의 활동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여성상이 됐고 여성이란 물리적 신체에 덧씌워진 젠더 관념 또한 조금씩 해체됐다.

그 결과 여성의 올림픽 참여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 여성 이벤트는 전체 올림픽의 20%를 넘지 못했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36.28%,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44%, 그리고 마침내 2024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남성 종목과 여성 종목은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 이처럼 오늘날 올림픽에서 양성평등의 성취는 어느 한 가지에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보다 여성 해방과 평등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이뤄진 노력과 역사의 우연이 만든 복합적인 결과이다.

21세기 올림픽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스포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협동, 희생, 페어플레이를 교육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를 통한 가치의 전파였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스포츠의 가치 속에 ‘여성’은 포함되지 못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고 100년이 지난 1996년, IOC는 올림픽 헌장을 개정하고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조 8항에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 스포츠의 진흥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 새겨 넣었다.

아마추어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스포츠와 학교체육,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국가 및 국제 스포츠 기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고 했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한다고도 했다. 이후 축구(1996년), 아이스하키(1998년), 럭비(2016년) 등 ‘과격’해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던 스포츠들이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레슬링(2004년)·복싱(2012년)과 같이 여성에게 금기였던 격투 스포츠도 정식 종목이 되면서 더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랜 시간, 스포츠는 국가주의와 상업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혔다. 냉전 시기, 공산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한 올림픽은 각 진영이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각축장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자 미디어 수익과 다국적 기업의 광고판이 된 올림픽은 돈을 좇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 설치된 파리 올림픽 디데이 조형물 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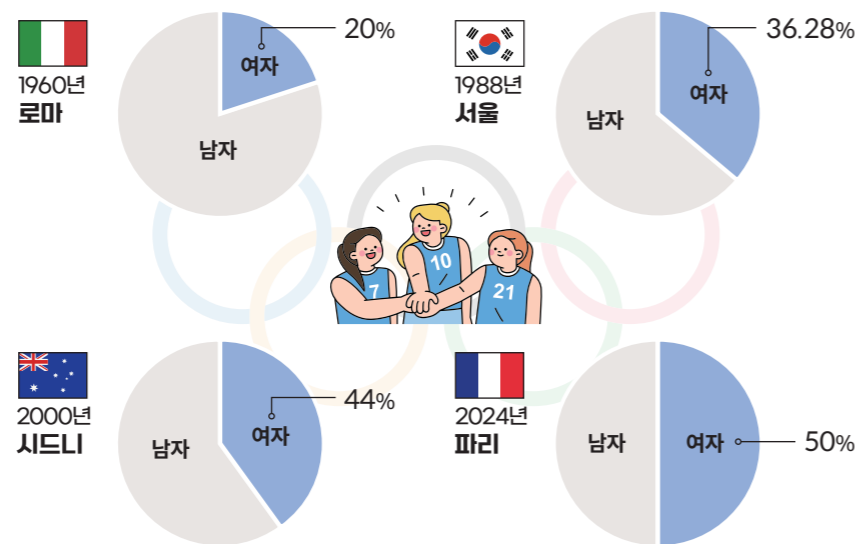
친 국가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해 가치를 상실한 올림픽에 공감하지 못했고 올림픽 무용론,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이제 올림픽은 그 가치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듯하다. 20세기의 올림픽은 건강, 호신, 평등, 페어플레이, 희생, 협동 등 스포츠가 담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통해 국가, 인종, 성별, 계급, 종교, 이념을 가로질러 전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21세기의 올림픽은 스스로 그 규모를 축소하고 양성평등을 비롯해 지속가능성(환경), 공정성(약물, 페어플레이) 등 새로운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성취한 남녀 참가 비율 50대50이란 숫자적 상징은 어떤 의미일까? 스포츠의 가치는 언제나 시

대정신과 마주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미래의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넘어서 양성평등과 환경문제 등 폭넓은 사회적 책임과 진보적 가치를 통해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마주하고자 하는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양성평등이라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품고,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올림픽 운동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글을 쓴 **한승백**은 현재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 특별히 스포츠와 젠더 이슈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자 프로배구의 모든 경기와 여자 프로농구의 대부분의 경기를 찾아보는 여성 스포츠 팬임은 분명하다.

역대 올림픽 여성 선수 출전 현황



‘스포츠’ 동행, 매력 특별시 SEOUL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의 캐치프레이즈다. 서울특별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모토로 삼았고 적극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모두의 건강, 체력, 복지’를 위한 스포츠 부문 역시 서울특별시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

‘어울림’ 통합체육 활성화, ‘모두의 스포츠’로 가는 길
서울특별시는 2022년 9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장애·비장애인, 생활체육·전문체육인 모두를 위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발표했다. 2025년에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이 개관할 예정이다. 또 서울특별시 유일의 반다비스포츠센터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8년 서울패럴림픽 레거시이자 서울 동남권 장애체육의 메카인 곰두리체육관 바로 옆에 2018년 평창패럴림픽 레거시 반다비스포츠센터가 들어서게 된 것은 뜻깊다. 서울특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동행’하

는 체육 활동에도 진심이다. 유·청소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스포츠를 통해 일상에서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맘을 흘리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어울림 대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스포츠 정책이다. 서울특별시는 2024년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대축전을 개최한다. 인천과 익산에 이어 ‘동행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특별시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분야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부터 매년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서울림운동회’도 주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내 24개 중·고교 장애·비장애학생들이 서울림통합스포츠클럽에서 8회 이상 농구와 배구, 스태킹 등을 함께 연습한 후 서울대체육관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쌓는 서울림운동회는 스포츠 가치를 깨우치게 하는, 교육적인 현장 통합체육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체육회 역시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 및 참가 시 ‘약자 우선’을 고려한다. 서울특별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진행한 ‘뉴레킹 한강-새로운 길을 걷다’ 행사가 대표적이다. 한강 수변 트레킹 5~7km 무장애(Barrier-free) 코스를 개발해 건강을 도모하고 서울의 매력을 가슴에 새길 수

“서울특별시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분야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 휠체어석을 예매할 경우 가족 및 활동지원사 1인은 무료 관람이 가능한 ‘휠체어석 이용 장애인 동반 1인 무료입장’ 제도를 도입했다

있는 행사다. 6~11월 총 5회, 총 4000명의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한 트레킹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 특히 회차별 모집 인원의 10%는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고립, 은둔 청년에게 배정했다. 6~9월 총 20회 차에 걸쳐 진행된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과 가족 클라이밍 교실 역시 16회 중 6회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에게 배정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스키 캠프도 매년 진행한다. 2023년 2월 하이원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스키캠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60명의 학생이 스키에 입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 다문화가족 대상 전액 무료 강습으로 진행됐다. 2023년 6~7월에 열린 가족 파크골프 교실엔 가족 288명이 참가했다. 취약계층(저소득층) 가족을 회차별 40% 내 우선 선정했으며 참가비는 면제된다. 2023년 11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된 가족 스케이팅 교실도 ‘약자 프렌들

리’ 정책이 적극 반영됐다. 4회 차 각 회당 120명, 총 480명이 참가, 무려 14대의 경쟁률을 기록한 스케이팅 교실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회당 50명은 사회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도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 나섰다.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와 함께 ‘휠체어석 이용 장애인 동반 1인 무료 입장’ 제도를 도입했다. 스포츠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에게 서울 연고 구단 스포츠를 체험하게 하는 지원 활동의 성과는 눈에 띈다. 2023년 공단 초청으로 스포츠를 관람, 체험한 취약계층 아동 참가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고척돔에서 323명의 초청 어린이가 키움 히어로즈의

프로야구를 관람했고, 장충체육관 일일 배구교실에는 120명이 참가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내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내 평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몸들을 위한 디자인>의 저자 사라 헨드렌(Sara Hendren)도 같은 말을 했다. “장애는 일부에게만 영원히 속하는 고정된 딱지가 아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회의 품격이다. 전 세계 인구의 15%는 장애인이고, ‘배리어프리’한 길은 휠체어에도, 유모차에도, 노인에게도 좋은 길이다.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곧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

글을 쓴 전영지는 <스포츠조선>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다. 그라운드 풀 냄새를 맡으면 호량이 기운이 샘솟는다. 스포츠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을 믿는 ENFJ 여자축구,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빅 팬이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건강한 주말을 위해 가족 스케이팅 교실을 운영한다

스포츠 가치 실현에 나선 기업들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 지원, 스포츠 시설 개보수 등 스포츠 분야도 빠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왜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을 끊임없이 추진하며, 결국 스포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포츠권을 마땅히 누릴 권리

‘스포츠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법안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스포츠 권리를 ‘스포츠기본법’에서 ‘스포츠권’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스포츠가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또한 ‘스포츠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스포츠 관련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다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어린이들이 모두의 운동장에서 N사가 지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게 됐지만 여전히 모두가 스포츠 앞에서 평등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평등의 다른 말 ‘모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권을 누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스포츠를 통해 ‘평등’을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N사가 그중 하나이다. N사는 ‘Just Do It’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N사의 캠페인들은 결국 ‘평등’이라는 가치로 향한다. 그중 몇 가지 캠페인을 소개한다. 먼저 10월 11일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 진행한 액티브 모두 걸즈(Active Modoo Girls)다. 액티브 모두 걸즈는 N사가 모든 아이가 평등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Active Modoo) 세션 중 하나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놀이 및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긍정적인 스포츠 경험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N사 관계자는 한국어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모두(Modoo)’에서 영감을 얻어 짓게 됐으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스포츠를 접하거나 꾸준히 배우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스포츠를 놀이로 접근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

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사는 2023년 5월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 금천구 소재 모두의 학교에 전 세대가 함께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을 열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어디든 놀이터 캠페인’에 후원해 모두의학교 운동장 시설을 개선한 운동장이다. 다양한 신체 능력을 가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장과 풋살장에 있는 3개의 골대를 높낮이가 다르도록 설계했다. 또 성별과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달리기 트랙, 플레이존 등을 다양하게 조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에 N사 관계자는 “건강한 신체 활동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내재적 잠재력을 끌어내고, 긍정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아이가 평등한 기회를 통해 스포츠에도

전하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로 바뀔 우리 세상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지닌 A사의 움직임도 바쁘다. A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아 운동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낡은 운동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다. 무료로 개방돼 지역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해당한다. 2017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잠실종합운동장 풋살장, 어린이대공원 풋살장, 진관 근린공원 풋살장 등을 포함해 11개 지역 23개 시설을 개보수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농구장을 새단장해 본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A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운동시설은 대부분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시

설이었다면 2022년에는 다운증후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인 다운복지관의 체육 시설을 개보수했다.

아직 스포츠 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다운복지관 관계자는 “A사 덕분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A사는 이외에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훈련이 힘든 스포츠 꿈나무 10명을 후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0명 중 절반인 5명은 여학생으로 선발해 스포츠를 통한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아디다스 코리아

A사의 ‘서울아 운동하자’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디다스 코리아

한강의 미래, 오! 그레이트 한강

한강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라는 4대 핵심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강의 자연생태를 지키면서도 편의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변 활력을 위해 한강을 도시공간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강에 놓인 다리는 밤이면 야경으로 서울을 환히 밝혀 밤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은 동호대교

한강의지금

한강 전체의 규모는 연장 약 494Km 정도이지만 유로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20% 정도인 2만5954km²에 달하고 유역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민의 한강 이용 현황은 하루 약 18만 명, 연간 약 6700만 명(2021년 기준, 미래한강본부) 정도다. 그리고 한강은 계절적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와 혹한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주로 취수나 이수 외에 친수공간으로서의 이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친수시설로는 한강공원이 조성된 이후 공원 내 조망쉼터, 유원지 등 옥외 여가공간, 체육 관련 시설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 시설로는 잠원 한강공원 내 '세빛섬', 뚝섬 한강공원 내 자벌레, 여의도 한강공원 내 물빛무대 정도다. 해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수변경관, 여가, 휴식, 쉼터 등 생활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외에 생태, 발전, 물류수송 및 항만시설, 도시교통수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및 경제 자원으로서의 활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홍수통제나 식수 조달 등을 위한 방재와 환경오염 측면에서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도시민의 상하수도 처리와 도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공간으로서의 활용만을 제한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한강으로향하는길

한강의 이용이 제약되고, 유대감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 단기간에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조성과 효율적인 상하수도 처리 등을 위한 하천의 직선화와 혐오시설 처리를 위한 고수부지의 조성 등으로 수변공간이 생활공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도시의 주변부로서 도시고속도로나 매립을 통한 도시 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물가에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수변으로의 접근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생활 속으로 다가오기는 더 어렵게 됐다. 더욱이 치수중심의 하천관리체계 및 규제중심의 중앙정부의 다양한 규정 등은 수변공간의 개발과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상대적으로 물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이수와 친수에 적극적인 유럽 등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와 홍수 등의 계절적 영향은 한강을 두려움의 대상이나 피해야 할 공간으로 치부하는 인식의 한계가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변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변화된 교통수단과 환경관리기술의 발전은 수변공간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UAM), GTX 등 초광역 고속철도 등의 발전은 기존 도시 내에서 자동차 도로 공간의 양적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에너지제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과 같은 미래 도시환경 관리기술의 발전은 자연생태성을 강화하면서도 홍수와 방재 등의 하천관리에도 한층 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도시 하천의 공간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로서의 자족적인 N분 생활권 조성 방향 등과 공원녹지를 보행 생활권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정원도시 실현 등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수변공간의 인식 제고와 한강 및 주요 지천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강의가치와잠재력

서울의 전체 물길은 약 332Km에 달하고 수변공간의 총면적은 무려 292km²로 서울시 면적의 48%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여기에 한강 수변길이는 강북이 39.8km, 강남이 45.9km로 총 78.7km에 달하고 한강 면적은 약 40km²로 11개 구에 걸쳐 있으며 서울의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 그 공간적 가치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탄천, 홍제천 등 37개 지방하천 174.9km, 안양천 등 국가하천 79.2km, 여의천 등 18개 소하천 22.1km, 14개 실개천 56.1km 등을 모두 고려하면 물과 함께 존재하는 수변 중심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하천이 서울의 곳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외사산(북한산, 덕양산, 용마산, 관악산),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큰 산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소하천이 복개되거나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청계천 복원처럼 생태하천의 복원과 친수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미래의 활용 잠재력이 크다 하겠다.

미래 서울을 위한 100년 종합계획으로서의 서울 대개조 방안에서는 수변공간,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서울의 자연 지형과 그 지형이 만들어낸 물길을 복원하고, 그 물길로 인해 생겨난 생태계가 이어져 도시 전체가 물길과 숲길로 이어진 친환경적인 미래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중심 공간으로서 한강은 자연스럽게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수변 생활 중심축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매력이 가득한 수변 감성문화 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 패러다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 세계는 과거 기능 중심의 도시주의(Urbanism)

“
한강은 매력이 가득한
수변 감성문화 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를 넘어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주의(New Urbanism)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중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기조에 기반한 생태적 도시주의 혹은 경관도시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 인류를 새로운 직·주·락의 시공간 통합의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안으로서의 산업도시 공간의 문화·여가·관광도시로의 미래 공간 재편의 방향으로 서울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수변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한강을 그리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시는 최근 한강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라는 4대 핵심 전략과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에서는 한강을 자연생태자원

으로서의 중요한 미래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풀 한 포기 없는 한강 하안을 바꾸지 않고 물고기 등 생태계가 살아 있는 한강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연성 회복, 자연친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친밀히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한강 본연의 자연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이 편리한 한강’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한강과 연결되는 기반 시설의 확대 조성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한강, 보행으로의 전환과 확장이 용이한 한강, 경계를 허물어 지상, 수상, 공중 이동이 편리한 한강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와 한강의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입체보행교의 조성 과 물위에서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상무대, 수상식물원, 선셋브리지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주요 거점 관광명소에 곤돌라의 설치 등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나들목의 증설과 리모델링, 승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한 도시를 넘어 세계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매력이 가득한 한강’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감성조망명소로서의 전망카페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음악예술공간 확장, 그리고 축제와 행사를 사계절로 확대 추진해 매력이 가득한 한강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및 서울문화마당 등의 조성 과 함께 놀빛광장 등 한강과 지친 합류부에 잔디마당, 편의시설 등의 조성 과 시민 선정 감성조망명소 5개소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관리 연계 및 이색경험휴식 등을 바탕으로한 미래 트렌드에 맞는 감동을 주는 감성 한강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더하는 한강’을 위해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을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한강에 면해 있는 도시공간 속으로 수변을 유입 연계시켜 한강과 연결한 수변 약 284km²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서울의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변 중심

공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성장거점을 강화시키며 주변 주거지 혁신을 추진해 복합용도 도입 및 한강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 강화와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도시혁신구역의 적용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과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글로벌 스포츠·MICE 허브 구축, 한강변 주요 거점 및 혁신축으로서의 감성 문화 혁신축, 국제경쟁 혁신축, 미래융합 혁신축, 청년 첨단 혁신축 등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서울에서 한강과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런던이나 뉴욕, 유럽 등을 넘어서는 미래 변화의 기회 공간으로서 아시아 중심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글을 쓴 **이희정**은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소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도시문화공간계획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미래 도시공간설계와 스마트 도시계획 및 빅데이터 시 미래 도시계획기술 국가R&D를 수행하고 있다.



2028년 상암 월드컵공원에 들어설 ‘트윈 휠(Twin Wheel)’은 캡슐 64개로 이뤄졌다. 각 캡슐에 한 주기당 최대 14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이다

“ 미래변화의 기회 공간으로서 아시아 중심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 및 관광명소에 곤돌라 설치를 검토 중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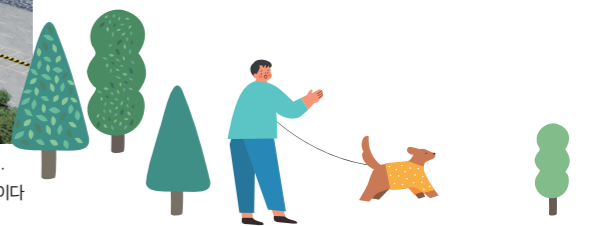
한강의 노후 수영장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의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목길은 단절됐던 한강·선사유적지를 연결해역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2026년 내에 완공될 잠수교는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보제공
미래한강본부



한강의 역사와 노을, 밤을 걷다

한강에 기록된 역사, 한강역사탐방

한강역사탐방은 한강공원 전역에서 펼쳐지는 역사·지리 코스로 이뤄졌으며 한강해설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함께 한다. 매년 4월에서 11월 말에 운영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서울의 동쪽 끝 광나루길부터 서쪽 끝 겸재정선길까지, 총 14개 코스로 이뤄진 코스 중 5개 코스를 먼저 만나보자.

광나루길: 경강의 시작, 삼국의 전쟁

- ① 천호역 → ② 풍납동 토성 →
 - ③ 도미부인 동상 → ④ 광진교8번가 →
 - ⑤ 광나루터 표지석 → ⑥ 광나루역
- *도보 약 150분 소요



광나루터 표지석
서울과 강원 지방을 이어주던 나루터로 조선시대 문인들이 풍류와 휴식을 즐기던 곳이다.

광진교8번가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는 교각하부 전망대로 현재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미부인 동상
백제 제4대 개루왕 시대의 실제 인물로 알려지는 도미부인의 정절을 기리고자 설립한 동상이다.

풍납동 토성
백제의 전성기 때 성곽으로 현재 약 2.1km가 남아 있으며 유실된 서벽을 포함하면 길이 3.5k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나루길: 도시의 형성과 발전

- ① 잠실역 → ② 삼전도비 → ③ 석촌호수 →
 - ④ 송파나루터 → ⑤ 석촌동 고분군 →
 - ⑥ 석촌고분역
- *도보 약 120분 소요



삼전도비
1639년 병자호란 때 조선이 패배하고 굴욕적인 강화협정을 맺은 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세운 비석이다.

석촌호수
잠실동과 신천동에 걸쳐 있는 인공 호수로 봄이면 벚꽃이 만개해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송파나루터
조선시대에 서울과 경기도 광주를 이어주던 나루로 잠실과의 사이를 왕복하고 뱃나무 등을 서울에 공급했다.

석촌동 고분군
백제의 초기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구려의 지배층 무덤과 비슷해 백제의 지배 세력이 고구려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은 한강을 가운데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일까.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강을 찾고, 셀 수 없는 만남이 이뤄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흐른다.

어느덧 일상의 한 편이 된 한강을 새롭게 즐겨보자.

동작진길: 명당 동작진과 애국지사

- ① 동작역 → ② 동작나루 표석 →
 - 국립서울현충원(③ 현충탑 → ④ 독립유
 - 공자묘역 → ⑤ 국가원수묘역)
- *도보 약 120분 소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이 안장된 곳으로 애국지사, 경찰관, 소방공무원 의상자들의 묘가 있다.

동작나루 표석
조선 후기에 수원, 과천 등에서 남태령을 넘어 도성으로 갈 때 이용하던 나루로 철종이 인조의 인릉에 참배하려 갈 때 배다리를 만들어 많이 이용한 길이기도 하다.

양화나루길: 외국 문화의 유입

- ① 합정역 → ②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
 - ③ 양화진터 → ④ 절두산 순교성지 →
 - ⑤ 양화나루 표석
- *도보 약 120분 소요



절두산 순교성지
1866년 조선은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교인을 산봉우리 절벽에서 참수하는데 이를 병인박해라 하며 이때부터 절두산이라고 불렀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묘원이었으나 선교사인 헤론이 사망하고 한국을 위해 활동하다가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외국인들의 묘가 조성됐다.

양화진터
양화도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삼진(三鎭)의 하나였으며 양화도라고도 불린다. 조선시대 주요 간선 도로상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였다.

겸재정선길: 겸재의 한강 그림

- ① 양천향교역 → ② 하마비 →
 - ③ 양천현아지 표지석 → ④ 양천향교 →
 - ⑤ 소악루 → ⑥ 겸재정선미술관
- *도보 약 90분 소요



하마비
그 앞을 지날 때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조선시대의 석비로 선열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소악루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르내리며 20여 편의 작품을 그린 곳이다. 학문과 시, 풍류에 능한 이들과 교류하며 시사회를 즐기던 장소이기도 하다.

양천향교
서울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향교로 조선 태종 때 창건해 황폐했던 것을 1981년에 복원했다. 지금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사군자 등을 가르친다.

한강에 펼쳐진 노을, 한강 솔래길

한강 솔래길은 한강의 노을 명소를 걸으며 둘러보는 '탐방길'과 여럿이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 '강강솔래'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조어다. 2023년 6월에 1코스 노을그림길, 9월에는 2코스 노을문학길과 3코스 노을신비길이 공개됐다. 특히 2·3코스는 전문 사진작가와 105명의 시민이 선정한 노을 명소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그림, 문학, 신비 키워드에 따라 준비된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며 노을을 감상하자. 한강 솔래길에는 전문 사진작가가 함께하니 아름다운 한강 노을 명소를 사진에 담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1코스 노을그림길 6.15km

'한강의 노을, 명화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이중섭의 <황소>,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 등 명화에서 표현한 노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코스

- 1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 2 잠수교
- 3 이촌한강공원
- 4 동작대교
- 5 한강대교
- 6 노들섬



2코스 노을문학길 5.84km

'문학, 한강의 노을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생택 쥐페리의 <어린이자>, 이육사의 <황혼> 등 문학 작품에 담긴 노을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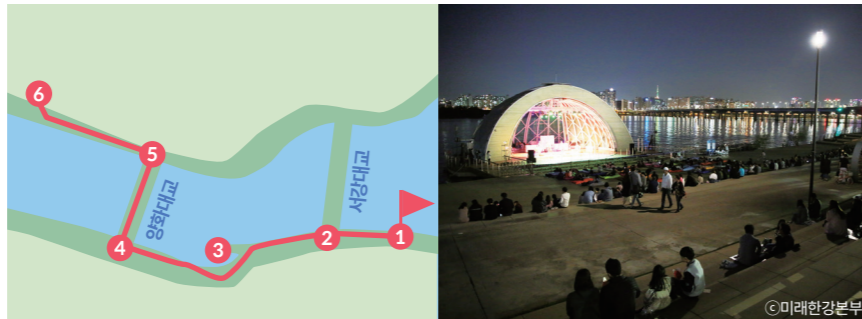
- 1 노들섬 노들스퀘어
- 2 한강대교 북단
- 3 이촌한강예술공원
- 4 마포대교
- 5 여의도한강공원



3코스 노을신비길 5.24km

'한강 노을의 신비로운 비밀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노을의 과학적 원리와 외스텐의 <알프스의 저녁노을> 등 음악으로 표현한 노을을 들으며 걷는 코스

- 1 여의도한강공원
- 2 서강대교 남단
- 3 서울마리나
- 4 양화대교
- 5 서울함공원 선셋전망데크
- 6 망원한강공원



한강에 드리운 밤빛, 한강 야경 투어

한강 야경 투어는 반포한강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서 문화 코스와 예술 코스로 운영된다. 이 코스들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 그리고 건축물과 예술 작품이 만들어 내는 스카이라인에 얽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혼자서 걷던 한강의 밤을 전문 사진작가, 그리고 '나'와 같은 시민과 동행하며 밤의 빛들을 만끽해 보자.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서울의 아름다움이 한껏 쏟아져 내릴 것이다.

반포달빛길

- 1 반포한강공원
- 2 서래섬
- 3 세빛섬
- 4 잠수교
- 5 밤도깨비 야시장



세빛섬
노을이 지면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불빛으로 서울의 야경 명소로 꼽힌다.

무지개분수
형형색색의 달빛 무지개분수가 쏟아지는 다리로 봄·가을에는 야경으로 가득한 분수쇼를 연다.



한강달빛야시장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달빛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밤의 예술시장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프리마켓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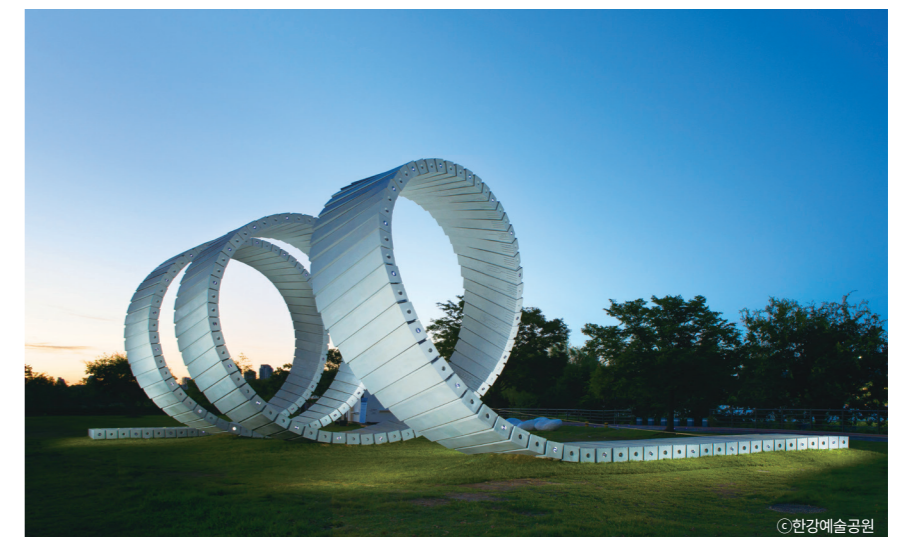
이촌별빛길

- 1 이촌나들목
- 2 한강예술공원 조형물
- 3 미루나무길
- 4 호안길



이용주 <뿌리벤치>
서울 도심과 강한 대조를 만들어내며 시민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한다.

미루나무길
동작대교 쪽은 '키다리 미루숲길', 한강대교 쪽은 '난장이 미루숲길'이라고 부른다.



모토엘라스티코(MOTOElastic) <스크롤-흐르는 이야기>
한강의 흐름 속 무한한 심을 상징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한강예술공원의 랜드마크로도 손꼽힌다. 벤치 역할을 해 시민들의 쉼터로서도 기능한다.

JIN XUEMEI  SEOUL

중국에서 온 쉘메이의 서울 피겨스케이팅

쉘메이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 눈 설(雪)에 열매 매(梅). 한국 이름은 중국 이름을 번역해 '김설매'다. 이름은 그 뜻대로 살기 바라며 짓곤 하는데 쉘메이의 이름이 딱 그러하다. 눈처럼 새하얀 아이스링크장에서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쉘메이입니다. 2018년에 한국에 왔어요. 가족이 먼저 와 살아서 어릴 때 방학마다 놀러 왔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서울에서 살게 되면 제 삶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 오게 됐어요.”

“Hello? I’m Xuemei from China. I came to Korea in 2018. My family moved here first, so I used to come during school vacations when I was younger. The experiences in Seoul left me with fond memories, and I decided to come here because I believe my life will become more enriching if I live in Seoul.”

JIN XUEMEI  SEOUL



♥ 피겨스케이팅은 주로 어디에서 타시나요?

목동 아이스링크장을 정기적으로 다녀요. 이곳에서 단체 강습을 6개월 받고 요즘에는 수요일마다 개인 강습을 받고 있어요. 피겨스케이팅을 처음 접한 곳은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이고요. 자유롭게 혼자 연습할 때는 제니스 아이스링크장이나 폴라리스 아이스링크장을 대관해요.

♥ 서울특별시장배 빙상경기대회에 출전하셨죠?

초급 부문 성인부에 출전했어요. 무급, 초급, 1급에 따라 경기 시간과 과제가 달라요. 초급 부문은 1분 30초 음악에 맞춰 최대 3개의 점프와 최대 1개의 3회전 이상 스핀의 과제를 해야 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많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거예요.

Where do you usually ride figure skating?

I regularly visit the Mok-dong Ice Rink. I've been taking group lessons there for six months, and these days, I have private lessons every Wednesday. The place where I first started figure skating was Lotte World Ice Rink. When practicing freely on my own, I rent out Zenith Ice Rink or Polaris Ice Rink.

Did you participate in the Ice Competition?

I competed in the beginner division for adults. The duration and tasks vary depending on the skill level—unranked, beginner, and level 1. In the beginner division, I need to perform up to 3 jumps and up to 1 spin of 3 or more revolutions to music for 1 minute and 30 seconds. If given the opportunity, I plan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ny more competitions in the future.



♥ 좋아하는 한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나요?

김연아 선수와 서민규 선수의 팬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실력과 활약에 대해서는 피겨스케이팅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강하게 공감할 거예요. 서민규 선수는 2022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서민규 선수의 연기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영화 <시네마천국> OST에 맞춰 연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 쉼메이에게 피겨스케이팅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취미였는데 일상의 중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과 중 남는 시간에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피겨스케이팅 일정을 가장 먼저 잡아요. 대회 출전 욕심도 생기고요.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루틴이 된 거예요.

Who is your favorite figure skater?

I'm a fan of both Kim Yu-na and Seo Min-gyu. Even for those who don't know much about figure skating, they can strongly empathize with Kim Yu-na's skill and achievements. I first discovered Seo Min-gyu during the 2022 Junior Grand Prix. Since then, I've watched his performance multiple times. His portrayal, synchronized with the OST of the movie <Cinema Paradiso> is something I still vividly remember.

What does a figure skating mean to you?

It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it has become the center of my daily life. Initially, it was something I did in my spare time after work, but now I prioritize scheduling figure skating activities above everything else. I've developed a desire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s, and it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my routine that I can't do without. a competition against myself to prove that I can finish the course regardless of the record.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record, but that I can complete the race.



쉼메이는 매주 수요일,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개인 수업을 받는다

피겨스케이팅으로 부지런해진 일상

주말 이른 아침. 쉼메이가 겨울의 찬 바람을 뚫고 목동 아이스링크장을 찾았다. 서울특별시장배 빙상경기대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음악에 맞춰 동작과 기술을 뽐내는 쉼메이의 표정은 아이스링크장 안에서 더욱 빛이 났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같이 아이스링크장을 몇 번 방문해 일일 체험 수업을 받기도 했다. '김설매'인 한국 이름을 '김설아'로 개명하고 싶을 정도로 김연아 선수의 팬이 된 쉼메이가 피겨스케이팅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2021년 6월이다. 당시 롯데백화점 면세점에서 근무했던 쉼메이는 직원 할인으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성인반 강습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보기만 했던 피겨스케이팅 종목에 직접 도전하며 재미를 쌓은 쉼메이는 집 근처에 있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주 1회 2시간씩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에 등록해 꾸준히 취미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쉼메이는 피겨스케이팅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울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섭렵해 나가고 있다. 강습이 없을 때는 구로구의 제니스 아이스링크장, 서초구의 폴라리스 아이스링크장을 찾아 혼자 훈련하며 평일 낮에 시간이 날 때는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까지 가기도 한다. 쉼메이의 삶에 피겨는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나

쉼메이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피겨를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치고 피겨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빠져들게 됐다고 한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피겨를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됐으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서울특별시장배 빙상경기대회뿐 아니라 앞으로 기회도 된다면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에 2022년 6월 목동마스터대회, 2023년 6월 목동마스터즈 대회, 2023년 7월 전국생활체육대회에도 출전했던 쉼메이는 목표가 있으면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감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며 본인에게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목표를 의식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마주했다. 꾸준히 피겨를 하는 데에는 쉼메이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 쉼메이. 지금의 선생님은 처음 목동 아이스링크장 단체 강습을 들었을 때 만났다. 쉼메이는 선생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며 선생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분명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도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 결국 해내는 자신을 발견한다며 스스로보다 선생님을 더 믿는다고도 했다. 쉼메이는 이번 겨울에도 아이스링크장 위에서 '나의 한계에 맞서고, 도전한다.' ✨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축구의 새로운 발견

서울재동초등학교 한가형 교사

공을 따라 움직이는 두 발과 시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축구를 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 '골(Goal)'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 순간 이뤄지는 팀원 간의 '소통'이다.



“

축구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이다. 공을 잡은 공격수와 이를 막는 수비수만의 경기가 아닌 중심의 바깥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

영역형 경쟁 스포츠 축구

잠시 축구를 떠올려보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 대개 유명 축구 선수나 월드컵, 축구공, 경기장 등 축구와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자, 그럼 '축구란 어떤 스포츠인가?'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보자. 알고 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초등 체육 교과 과정에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필드형 경쟁 스포츠,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있다. 농구, 핸드볼 등과 같이 축구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해당한다. 상대 팀의 영역에 누가 더 많은 공을 넣는가를 겨루는 스포츠로 '영역'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하기 쉽다. 축구 경기 내내 모든 움직임은 영역이라는 큰 공간에서 이뤄진다. 공을 잡은 사람과 이를 막는 사람 즉, 공격수와 수비수만의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심의 바깥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패스하려고 할 때 공을 잡고 있는 공격수는 같은 팀 선수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때 패스에 성공하기 위해 공을 잡고 있지 않는 같은 팀 선수는 꾸준히 움직여야만 한다. 이처럼 경기 내내 개인적인 움직임과 전체적인 움직임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또 다른 특징은 공격과 수비가 전환되는 시점이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는 공의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다. 다시 축구를 떠올려보자. 경기를 뛰는 모든 선수의 움직임, 공격과 수비가 전환되는 시점의 득점을, 서울재동초등학교 한가형 교사가 4학년 교과 과정에 있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종목으로 축구를 꼽은 이유이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축구공을 활용해 몸을 풀고 있다

소통으로 완성되는 Pass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교내·외에 울려 퍼지자 서울재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온다. 운동장 스탠드에 개인 텀블러를 올려두고 줄 맞춰 자리를 잡는 학생들. 한가형 교사가 줄의 가장 앞에 서서 구령에 맞춰 몸풀기 동작을 시범하면 학생들이 구령을 이어받아 외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몇 개의 몸풀기 동작 끝에 축구 수업만의 특별한 몸풀기 시간



패스 1, 2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팀을 이뤄 패스 축구게임을 하고 있다

이 이어진다. 축구공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쪽 발로 공을 굴리면서 인사이드 패스를 한다. 마지막으로 30회 번갈아 뛰기. 정지된 상태의 공을 몸 가운데에 두고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콕콕’ 짝는다. 굳은 몸을 풀고, 감각 훈련을 키우며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한가형 교사는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같은 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경기를 이끌어야 해요. 내가 못 해도 우리 팀이 함께하면 잘 해낼 수 있어요”라며 패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40분의 수업 중 절반 이상의 시간에는 수많은 패스가 이어졌다. 이날 수업은 패스 1, 2단계와 패스 축구게임으로 진행됐다.

먼저 패스 1단계이다. 1단계 동작을 능숙하게 해내야만 다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10명의 학생이 5명씩 한 팀을 이룬다. 각 팀의 자리에서 큰 원을 만들고, 공을 잡고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패스한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공을 전해 받을 친구의 이름을 부른 후 패스하는 규칙이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발이 공으로 향하는가 하면 ‘나’와 친구 사이의 거리에 따른 힘 조절을 차마 놓치고는 운동장 저 멀리 공을 차기도 한다. 그때마다 한가형 교사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친구가 공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패스하는 거예요. 무조건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친

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패스해야 좋은 패스예요”라며 같은 팀 친구들과의 소통을 패스로 가르쳤다. 팀끼리 패스를 익혔다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는 수비수가 등장한다. 대형은 1단계와 같다. 단, 다른 팀 학생이 원의 중심에 들어와 수비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지 않으며 같은 팀에게 패스해야 한다. 난도가 높아진 셈이다. 수비수가 들어오자 이름을 부르고 패스하는 규칙을 잇는 등 학생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패스에 성공해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패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을 보내겠다는 신호와 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빠졌기 때문이다. 원 안의 수비수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적극적으로 패스”하라는 한가형 교사의 지도도 계속 이어졌다.

함께 만드는 골

모두 패스 1, 2단계를 통과했다. 이제 패스 축구게임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하나의 직사각형을 두 개의 영역으로 팀당 한 영역씩 활용했다면 이제는 전체 영역을 두 팀이 같이 활용한다. 축구게임은 골대가 두 개이지만 패스 축구게임은 골대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 골을 넣은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 팀원 간의 패스를 통해 골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임이다. 패스 훈

“**한가형 교사는 “무조건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패스해야 좋은 패스예요”라며 같은 팀 친구들과의 소통을 패스로 가르쳤다**”

련을 할 때보다 배로 확장된 영역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차지해 나가며 팀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 실전과도 같은 이 게임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12월의 겨울, 외투를 입고 수업하던 학생들이 패스 축구게임을 하자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 팀대팀으로 맞서는 게임에 열이 오른 것이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의 이름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아직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모두가 공에 집중할 나머지 넓은 공간을 두고 한쪽에 밀집했다. 한가형 교사는 이때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해

패스하라”며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더해졌다. 공을 잡고 있는 학생이 패스받을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이 밀집된 영역에서 벗어나서 공을 잡고 있는 학생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5분간 패스 축구게임이 이어졌다. 같은 팀, 상대 팀의 움직임에 집중해 패스하는 것은 꽤 정교하고 섬세한 일이다. 승패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며, 얼마나 공을 많이 굴렸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마무리 운동을 마치고 운동장 스탠드에 모여 앉아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패스할 때 고려해야 할 게 많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며 그사이에 상대 팀에게 공을 빼앗긴 아쉬움을 달래는 학생, “패스할 때 친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못했다”라며 축구할 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학생들의 회고가 이어졌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회고였다. 두 볼이 빨갛게 상기돼 숨을 헉헉거리며 개인 텀블러를 찾는 학생들에게 “숨이 찼다면 정말 잘한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가형 교사다. ❁



40분간의 패스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한가형 교사의 구령에 맞춰 마무리 운동을 하고 있다

變變(변변)스포츠는 '변화하는 스포츠, 진화하는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스포츠 비하인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스포츠 관람, '체험을 위한 여정의 문화'로

스포츠 이벤트는 '관람' 문화의 대표적 상품이다. 스포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울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관람의 대상이었던 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인식과 관람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관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험'과 '여정'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관람'이라는 단어에 담을 수 없는 스포츠 이벤트 '경험'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 잠실종합운동장은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니폼으로 무장한 팬들의 모습,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애정으로 뿔뿔 뭉친 팬들 등 다양한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의 눈빛에 흐르는 승리에 대한 기대와 열은 흥분감은 이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이 교차된다. 어떤 소비 행동이 사람들의 웃을 맞춰 입게 만들며, 알 수 없는 소비 결과에 대한 흥분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 소비의 대상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미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관람'은 사전적으로 '연극, 영화, 운동 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정의된다. 핵심 행위인 '구경하다'는 영어로 watch, see 등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람객

(구경꾼)의 행동을 단순히 스포츠를 '구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스포츠팬들이 이벤트를 소비하는 목적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소비 과정을 고려했을 때, 답은 'NO'이다.

스포츠의 경험적 가치와 범위

40여 년 전 허쉬만(Hirschman)과 홀브룩(Holbrook)은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관점의 실효적,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감성적, 감각적, 경험적 가치를 위해서도 소비에 참여한다는 쾌락적 소비의 개념을 정립했다. 이 개념은 소비자들이 최적의 소비로서의 합리적 소비를 지향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확장시켜 경험적 가치 추구를 위한 소비 이해도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경험적 가치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유발한다. 최적의 소비 결과라 할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팀의 경기 관람을 위해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의 행동만으로도 그 비상식적인 경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경험적 가치의 중요성이 존재하는 스포츠 관람은 소비의 과정 측면에서 기능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과정과 매우 다른 속성과 양태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구매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들이고 사용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으나 스포츠 관람 같은 소비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며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스포츠 관람 소비 경험은 티켓 예매 후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경기장에 방문할 때 누구와, 어떤 응원복을 입을 것이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장내 행사를 즐길 것인지, 경기를 즐기며 무엇을 먹을지 등을 상상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구경'의 상황을 떠올리며 다양한 상상 속 '경험'을 통해 소비 경험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관람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식: Experienscape

이러한 스포츠 관람 경험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익스피리언스케이프(Experienscape)이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그들의 소비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환경 요

소는 경기장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비롯해 인접한 타 소비자들(다른팬들), 경기장 안팎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감각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 경험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 소비자(팬)와 소비 환경 전체가 소비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해 팬들의 경험을 생성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확장된 경험에 관한 이해는 핵심 소비 세대의 변화에 따른 경험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2022년 관람객 성향 조사에 따르면 20~30대가 한국 프로스포츠 팬의 약 66%를 차지했다. 경험적 소비를 추구한다고 알려진 MZ세대가 주를 이룬다. MZ세대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한 소비가 적극적이다. 또 경제적 가치를 대변하는 가성비를 뛰어넘는 '가심비', 즉 소비를 통한 심리적, 감성적 만족감을 더욱 중요시하는 소비 주체로 부각됐다.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결국 지금의 스포츠 이벤트는 경험의 장이자 경험적 여정을 제공하는 존재가 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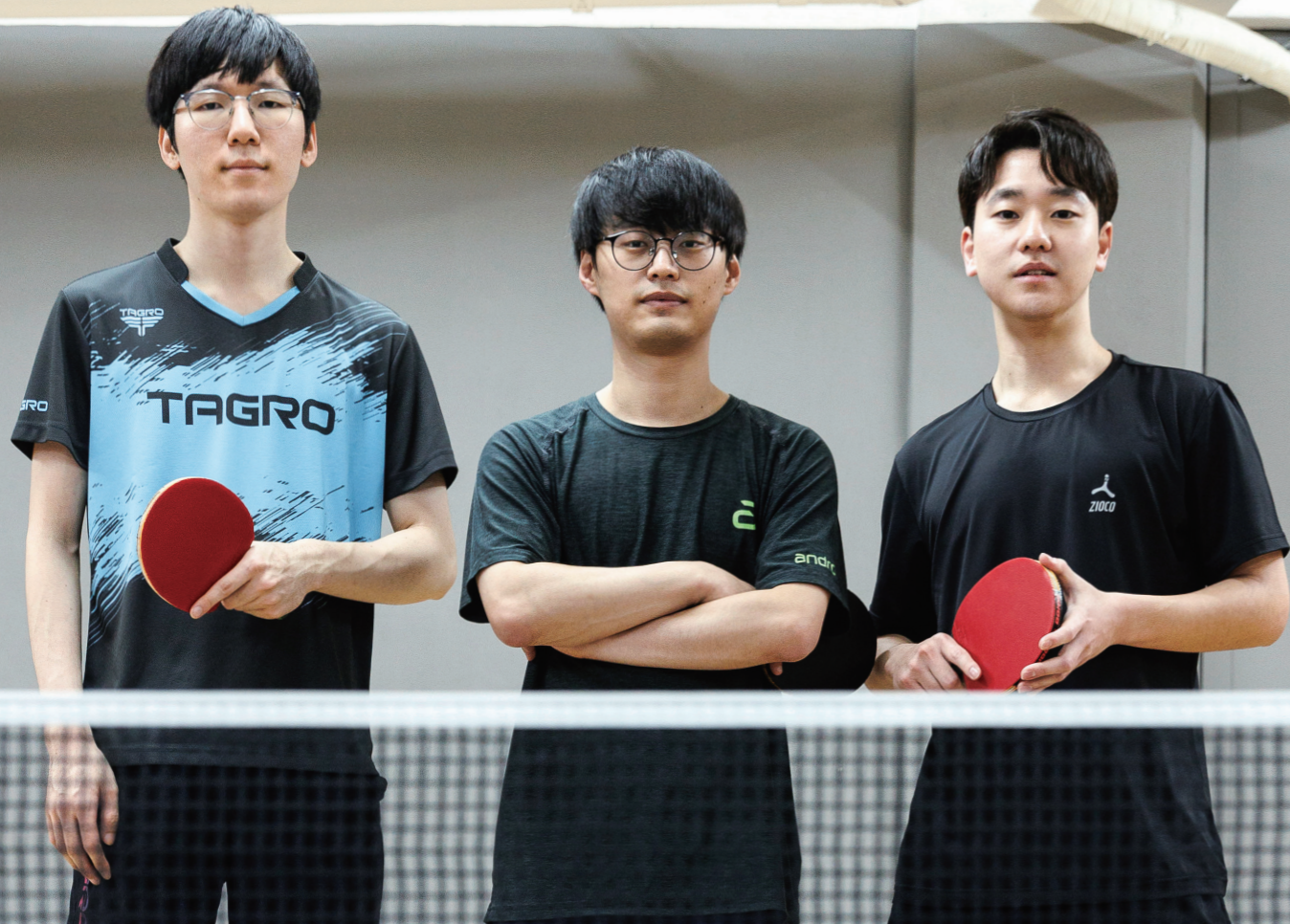
팬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이제는 경기장 안팎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소비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재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단순 관람이 제한된 물리적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면 여정으로서의 이벤트 경험은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시공간 확장이 동반된 과정의 개념이다. 팬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들만의 여정을 완성해간다. 야구 경기가 끝난 잠실야구장은 더욱 흥미롭다. 식지 않은 분위기에 삼삼오오 그룹을 이룬 팬들은 그들만의 응원을 통해 달콤한 승리의 여운 혹은 씁쓸한 패배의 위안을 나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스포츠 이벤트 여정의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기약한다. ✨

글을 쓴 이준성은 스포츠경영을 전공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그는 최근 2달간 단기 돌봄을 하게 된 고양이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탁구리그 넘버원, 팀 원재현은 강하다

탁구 동호회 원재현

2023 서울시민리그 탁구리그 결선은 '올림픽 못지않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손에 땀을 쥐었다. 한 점을 앞서가면 바로 한 점을 따라오고, 이겼다 싶으면 바로 역전이 되는 등 두 팀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승부를 거듭했다. 이 명승부의 최종 우승자는 대학생 청년 셋이 모인 팀 원재현이다.

탁구 동호회 원재현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승윤 • 안녕하세요. 서울시민리그 탁구리그에 원재현 팀으로 출전해서 우승한 백승윤 대표입니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대학원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2015년에 대학 입학 후 탁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7년 정도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오사와 유키노리 • 안녕하세요. 저는 원재현 팀에서 일본인을 맡고 있습니다(웃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탁구 동아리부터 시작한 후로 10년 정도 탁구를 하고 있어요.

원재현 • 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인 팀원 원재현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탁구장에 처음 갔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4~5년, 대학에 와서 4년 정도 줄곧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원재현이란 팀명이 눈에 띄네요. 팀이 탄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백승윤 • 원재현 팀은 올해 서울시민리그 출전을 위해 제가 결성한 팀이에요. 저와 원재현 선수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부터 복식 파트너로 함께 다녔는데요. 원재현 선수가 실력이 좋은 데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원 선수를 더 알고자 '원재현'을 팀명으로 지었습니다. 원재현 팀원은 서울시민리그 출전을 목표로 결성한 팀이라 출전 부수가 다릅니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셋이서 출전하려고 해요. 팀원들끼리 호흡이 척척 맞거든요.

오사와 유키노리 선수는 일본인인데요. 어떤 계기로 원재현 팀에 합류했나요?

백승윤 • 유키노리 선수는 올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편입하면서 탁구 동아리 생활을 함께하게 됐어요.

오사와 유키노리 • 원래는 저 말고 다른 선수가 원재현 팀원이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팀에서 빠지면서 제가 대타로 원재현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같이 연습하던 사이라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팀원들의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처럼 친해 보입니다.

백승윤 • 대회 당일에 경기장에 가면 다양한 팀이 있어요. 그중에 저희 팀이 가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하려고 결성된 팀이지만 항상 사이좋게 탁구를 쳤기 때문에 운도 따라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사와 유키노리 • 팀원들이 서로 즐기면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희 팀의 장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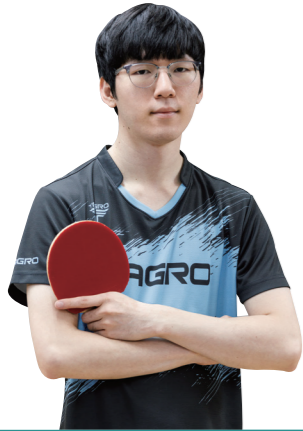
원재현 • 친한 사람들끼리 편한 마음으로 칠 수 있어서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



대표 백승윤

“ 원재현 팀은 올해 서울시민리그 출전을 위해 결성한 팀이에요. 원 선수를 더 알고자 '원재현'을 팀명으로 지었습니다 ”





팀원 원재현

“ 서로 친해서
마음 편하게 경기한 덕분에
우승한 것 같습니다 ”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승윤 • 다른 생활체육대회는 최소한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처럼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각자 바쁘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 저희끼리 먼 거리를 다녀 오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서울시민리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몇 안 되는 대회라 최대한 출전하려고 합니다.

오사와 유키노리 • 사실 저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시민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왠지 크고 재미있는 대회인 것 같아서 참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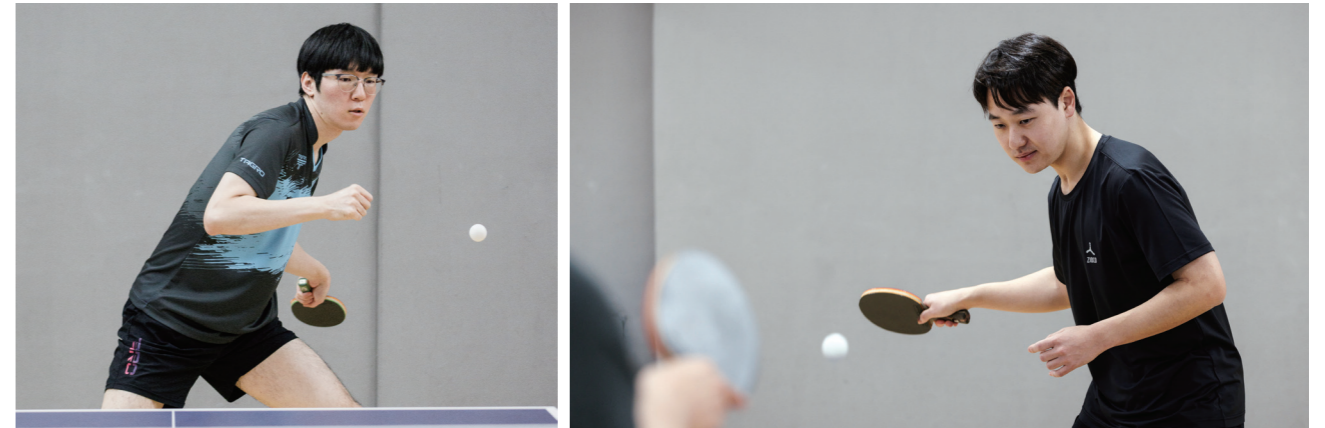
원재현 • 저는 백승윤 형이 나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웃음).

2023 서울시민리그 탁구리그 결선에서 접전을 거듭한 끝에 우승하는 명승부를 펼치셨어요.

백승윤 • 원재현 선수가 결선에서 상대한 선수는 예선에서 원재현 선수를 이겼던 선수였어요. 저는 결선 때 중계 카메라가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원재현 선수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중요한 때일수록 잘 치는 선수거든요. 유키노리 선수는 상대 선수와 박빙 승부를 보였는데 제가 벤치에서 코치를 잘해줘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오사와 유키노리 • 결선에서 제가 10대5로 이기고 있었던 중에 상대 선수가 뒤쫓아와 듀스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지금 이기면 제가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원재현 • 결선에서 예선 때 경기했던 분을 다시 만났어요. 예선 때는 2대0으로 패했는데 결선에서 다행히 승리했습니다.



우승한 기분은 어떤가요?

백승윤 • 결선 당일엔 경기장에 입장하자마자 긴장을 많이 했지만 저희 팀이 상대적으로 젊고 팀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어요.

오사와 유키노리 • 저는 예선에서도 많이 긴장했어요. 결선 때는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열심히 경기를 했고 결국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원재현 • 팀원들 모두 실력이 좋아요. 잘 버텨줬고 서로 친해서 마음 편하게 경기한 덕분에 우승한 것 같습니다.

탁구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백승윤 • 처음에 탁구를 시작했을 때는 압사하게 이기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이제는 실력이 늘고 부수도 올라가면서 점점 탁구라는 스포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오사와 유키노리 • 탁구는 회전도 있고 환경 영향도 커서 정말 어려운 스포츠이긴 해요. 그래도 나이 상관없이 재미있게 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원재현 • 탁구는 날씨가 어떻든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탁구를 배우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

백승윤 • 탁구는 배울수록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는 스포츠입니다. 처음에는 탁구장에서 기초 레슨을 등록해서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팀에 들어오고 싶다면 제가 팀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일단 원재현을 이기셔야 합니다(웃음).

오사와 유키노리 • 탁구는 생각보다 어려운 스포츠예요. 흔히 랠리(Rally)라고 하죠. 넘어오는 공을 치기만 한다고 이어지지 않아요. 기술도 필요하죠. 일단 탁구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현 • 탁구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과격하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재미를 느끼시면 그때는 드라이브 같은 여러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취미 생활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탁구를 권해드립니다. ♻️



팀원 오사와 유키노리

“ 팀원들이 서로 즐기면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희 팀의
장점이에요 ”



평창의 유산, 다음 세대로 이어지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우리’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된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IOC의 3대 대회 중 하나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 청소년 선수 1900여 명이 참가 예정인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동계올림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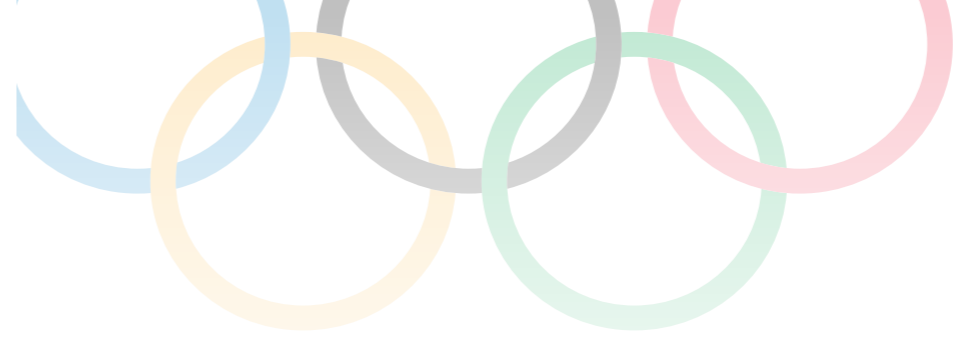


2023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화, 진중호 위원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왼쪽에서 4번째부터) 등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G-100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주인공 - 청소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스포츠의 차세대를 이끌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전 세계 청소년이 우정을 쌓고 화합을 도모해 올림픽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올림픽대회로 기존의 성인 올림픽과는 달리 참가 선수의 연령이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초, 청소년 비만 및 활동 동량 감소를 우려한 국제스포츠계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2007년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된 제119차 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Jacques Rogge) IOC 위원장이 ‘우리는

전 세계 다음 세대에 빛을 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 획기적인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2010년 싱가포르 하계 대회를 시작으로 성인 올림픽과 동일하게 동계 대회와 하계 대회가 4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는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IOC의 과감한 도전이자 올림픽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대회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교육 전문가로, 스포츠 활동만큼이나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청소년올림픽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인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CEP)이 더욱 조명을 받는다. 참가 선수들은 문화·교육 프로



그램의 다양한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본인의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청소년올림픽은 개최 도시에서 대회를 위해 미디어센터나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새로운 경기 시설이나 교통망 설립이 불가하다. 이러한 대회의 기원과 목표에 걸맞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차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림픽의 무대에 서는, 새로운 올림픽의 레거시가 될 것이다.

2018 평창을 잇는 지속가능한 올림픽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81개 메달을 두고 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의 유산 위에서 경쟁하며 이번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한 종합 대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후 대회 시설들이 공연, 축제, 컨벤션, e스포츠대회 등에 사용되기는 했으나 사후 활용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기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보수해 활용하고 일부 알파인 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은 정선 하이원리조트와 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동계 국제스포츠대회를 위해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다른 주목할 점은 국내 최초로 개막식이 강릉과 평창에서 이원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개막식이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오각형의 개방형 건물로 한파와 폭설이 그대로 관중들에게 노출되는 탓에 큰 우려가 있었다.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평창돔에서 공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회의 목표 관중은 25만 명이며 대회 기간 개최 도시를 찾는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연인원은 6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서 인프라 개

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기장을 넘어, 다음 세대와의 연결과 교류

스포츠를 넘어 청소년올림픽의 중요한 한 축인 문화와 교육은 선수와 대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 개최 도시 및 주변 지역민 모두를 포함한다.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발견과 만남, 연결과 도전, 공존, 지속가능성’이라는 4개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 리포터(YR) 프로그램’은 대회 기간 중 IOC에서 차세대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분야에 관련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활동이다. 올림픽위원회 대륙연맹이 선정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5개 대륙을 대표한다. 이 청소년들은 리포팅, 사진, 방송, 소셜 미디어 등 스포츠 보도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올림픽 현장 보도 및 취재 리포터로 활동하게 된다. 또 다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첫 대회에서부터 시작한 이래 중추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몰모델 선수(ARM) 프로그램’이 있다. IOC가 선정한 최정상급 올림픽피어들이 청소년 선수들의 멘토가 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구현하며 동시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사명을 달성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강원 2024 올림픽의 톨모델 선수로 한국의 원운중(불슬레이), 김창민(컬링), 민유라(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포함, 총 17명의 국내외 선수가 선정됐다. 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매서운 추위도 잊게 했던 2018 평창의 뜨거운 열정과 환호를 다시 한번 이곳 강원에서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을 쓴 박주희는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무총장이다. 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이자 국제스포츠 전문가로 동·하계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 참여했으며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위원 및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과학위원으로도 활동한다. 대한민국의 최초 국제수영연맹(AQUA) 집행위원이며 OCA IOC 등에서 ‘한국 출신의 아시아 여성 스포츠 리더’로 언급된 바 있다.

국제 스포츠계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유치에 성공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 중에는 일단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네움시티)과 2034년 아시안게임(리야드)이 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없지만 2034년 월드컵도 사실상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개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2034 월드컵’ 개최를 놓고 경쟁을 하던 호주가 개최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이 없는 한 사우디는 카타르에서 열렸던 ‘2022 월드컵’ 이후 두 번째로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개최국이 될 예정이다.

이미 시동 걸린 사우디의 스포츠 행사 유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에 적극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차기 국왕이며, 이미 사우디의 실권자로 꼽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사우디 왕세자 자리에 오른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를 개방적인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해왔다. 또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스포츠 산업 육성과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는 사우디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비석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온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왔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디리야’ 지역은 현지에서 국가와 왕실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사우디 왕가의 발상지로 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디리야에서도 사우디 정부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열었다.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물러’의 경우 2018년부터 꾸준히 디리야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우디 출신의 여성 카레이서인 리마 주팔리가 대회에 참여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고대 아랍의 전통미가 담긴 건물들 사이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트랙을 도는 ‘독특한 모습’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사막의 혈투’ ‘사막의 매치’로 불린 WBA·IBF·WBO·IBO 복싱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도 디리야에서 펼쳐졌다. 파격적인 상금으로 유명 테니스 선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디리야 테니스컵’의 행사장도 당연히 디리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테니스 시장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 업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

사우디는 2023년 6월 세계 골프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가 지원하는 LIV 인비테셔널 골프(LIV)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DD월드투어(옛유러피안투어)가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원래 LIV골프와 PGA 투어는 경쟁 관계였다. 2022년 6월 출범한 LIV골프는 사우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브룩스 썬카 등 유명 선수를 PGA 투어에서 빼갔다. 격조한 PGA 투어가 LIV골프로 넘어간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을 정도다. 그러나 ‘통합 발표’가 전해지자 결국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사우디 안팎에서는 “단순한 보여주기 이벤트로 사우디가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다. 사우디는 스포츠 산업에 진심이다”란 평가도 힘을 얻었다. 특별한 점이 없었고, 경기 수준도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던 사우디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오일머니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월드스타’인 네이마르(브라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카림 벤제마(프랑스) 등이 이미 사우디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다. 또 사우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EPL의 명문 팀인 맨체스터시티를, 카타르가 프랑스 리그앙(리그)의 명문 팀인 파리 생제르맹(PSG)을 인수한 것을 벤치마킹한 모습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스포츠에 관심 가져

사우디의 스포츠 산업 육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보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통하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관심은 사우디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다. PIF(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의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같은 콘텐츠 기업에 투자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또 사우디는 이웃나라인 카타르가 아랍 국가 최초로 ‘2006 아시안게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시작으로 카림 벤제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사우디 리그로 영입했다

국가 최초로 ‘2022 월드컵’을 유치하며 국가 브랜드를 높인 것에도 적잖은 자극을 받았다. ‘이슬람 종주국’이란 무겁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스포츠만큼 좋은 도구도 없다. 더 나아가 사우디는 중·장기적인 해외 기업과 투자 유치에도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인력들의 장기적인 사우디 거주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답답한 이미지와 부족한 문화 콘텐츠 인프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어떻게 해서든 ‘매력 있는 나라’란 이미지와 인프라를 만들어야만 한다. ‘사우디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스포츠 산업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사우디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석유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거나 석유가 아닌 다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본 경험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우디가 향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스포츠 행사 관리와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

글을 쓴 이세형은 2005년 동아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등을 거쳤다. 카이로 특파원, 국제부 차장, 카타르의 싱크탱크인 아랍조사정책연구원(ACRPS)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현재는 채널A 정책기획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디지털콘텐츠와 월간 ‘신동아’ [이세형의 더 가까이 중동] 코너에서 다양한 중동 이슈 기사를 쓰고 있다. 단행본 <중동 라이벌리즘>과 <있는 그대로 카타르>를 펴냈다.

현실 세계로 나온 진짜 같은 가상 인간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보험, 패션, 식품 등 여러 분야를 섭렵한 광고 모델. 야구 경기의 시구자로 나선 발랄한 젠지(Gen-Z) 여성. 지구 어디엔가 실존할 것만 같은 이들의 정체는 사실 가상 인간(Virtual Human)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픽에 불과했던 이들이 오늘날 진짜 같은 매력을 발판 삼아 현실 세계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인류

2021년 7월, 한 보험사의 광고에 젠지(Gen-Z) 특유의 톡톡 튀는 개성으로 무장한 여성 모델이 등장했다. 식물원, 건물 옥상, 지하철 등 여러 장소에서 리듬감 넘치는 춤을 선보이며 보험사의 젊은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킨 그의 이름은 '로지'. 한 기업이 2021년에 선보인 가상 인간이다. 우리나라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한데 모은 끝에 탄생한 로지는 동양미 물씬 풍기는 마스크에 22세, 171cm라는 구체적 콘셉트까지 더해진 덕분에 젊은 층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17만여 명에 이르는 SNS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로서 지금껏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상 인간으로 구성된 K팝 아이돌 그룹도 탄생했다. 엔터테인먼트사와 게임사가 합작해 만든 4인조 가상 아이돌 '메이브'는 2022년 1월 데뷔했는데 데뷔곡 <관도라>는 4100만 회의 스트리밍 수, 2500만 회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가 하면 한 식품기업은 가상 인간으로 구성된 4인 가족 '신선패밀리'를 통한 제품 홍보에 나섰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자체 제작한 가상 모델 '여리지'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가상 인간의 행동반경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상 인간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150명을 넘어섰으며 가상 세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세대 버추얼 휴먼 로지



©신한라이프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 일상의 일부로

1998년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했을 때만 해도 가상 인간은 딱 봐도 그래픽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현실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었다. 아담의 목소리와 노래 또한 대역 가수가 대신해 준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아닌 존재를 바라볼 때 인간과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급격하게 불쾌감에 빠지는,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를 넘을 수 없었으며 아담의 인기 또한 금세 시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픽, 인공지능 등 가상 인간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인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생김새, 인간과 비슷한 소통 능력을 지닌 가상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효시인 로지의 SNS에 들어가면 실제 장소와 로지를 거리감 없이 합성한 게시물들이 400건이 넘는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소개 글이 아니면 실제 인물로 착각할 정도. 게다가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선별해 생김새와 행동에 녹였으니 10~30대가 이들에게 빠져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도 가상 인간의 인기 상승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끼리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상에서의 소통이 늘어났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상 인간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스포츠와도 함께하는 가상 인간

가상 인간은 스포츠 분야에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단 SSG랜더스는 2022년 8월 10일, 모그룹이 만든 버추얼 인플루언서 '와이티'를 시구자로 내세웠다. 마운드 대신 전광판을 통해 등장한 와이티는 정석적인 시구를 선보였음은 물론 선수단을 응원하는 세리머니도 선보여 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 한편 얼마 전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스포츠 버추얼 휴먼 '정바다'를 선보이며 MZ세대와 프로스포츠 사이의 거리를



스포츠 버추얼 휴먼 정바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버추얼 휴먼 '정바다'를 통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 및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한걸 좁히려는 의미 있는 시도에 나섰다. 최근 가상 인간의 영향력은 실제 인간 스타와 비견될 정도로 커졌다. 이에 따라 가상 인간의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진리서치는 2020년 1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시장이 2030년 53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가상 인간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이긴 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MZ세대의 호기심이 맞물려 흥한 가상 인간 마케팅이 엔데믹으로 인해 한풀 꺾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도 상당수다. 무엇보다도 대중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상 인간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 인간의 흥망성쇠는 이러한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 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살기>를 집필했다.

도심 속 스케이트장, 2023-2024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지난 시즌에 13만 9614명이 방문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겨울 축제 공간'을 주제로 서울광장 전체에 24개의 작은 집들로 둘러싸인 스케이트장. 주말과 성탄절, 송년 제야 및 명절 등 시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번 스케이트장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12월 22일에 열린 2023-2024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오세훈 시장 우측 첫 번째),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세훈 시장 우측 두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일에는 21시 30분, 공휴일에는 23시까지 운영해 어둠이 깔린 밤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외국인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홍겨운 버스킹 공연으로 스케이트 개장을 알리고 있다

2월 11일까지 열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1회 1시간, 스케이트화 대여료를 포함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선진구로 향하는 출발선에 서다

도봉구체육회 박상용 회장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듯 도봉구체육회는 ‘스포츠 선진구(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종목을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릴 것입니다.” 시원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건강한 도봉으로 나아가는 박상용 도봉구체육회 회장을 만났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어르신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도봉구체육회가 중랑천 파크골프장 확장 개장 등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 11월에는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합동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했고 도봉구맨발걷기협회,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 창단 등 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 박상용 도봉구체육회장이 민선 2기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을 앞둔 지금까지의 활약이다. 곧 겸손으로 통한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이 발휘된 덕분일까.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봉구의 지역 특색을 살려 도봉구체육회만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2023년 11월,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합동사무실이 도봉구 창동에 새롭게 조성됐다



Q. 2023년 11월에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합동사무실이 개관했어요. 체육회만의 보금자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체육회 중 도봉구체육회가 최초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청을 비롯한 그 밖의 도움들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도봉구체육회 청사 마련을 위해 회장으로 출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도봉구체육회가 보조·지원받는 단체라는 개념에서 확장돼 자립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청사 마련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종목회원 단체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봉구체육회의 일원이라는 데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데 도봉 체육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도봉구체육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체육회에서도 좋은 기회가 마련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만들기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도봉구만의 특징을 살려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나요?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강북구 다음으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특색에 맞춰 어르신 대상의 체육·문화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도봉구 행정구역에 속하는 중랑천에 6번 홀까지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9번 홀로 확장해 어르신들의 스포츠 생활에 더욱 활기를 띠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게이트볼 종목 리그 운영입니다. 이미 게이트볼은 많은 어르신의 대표 스포츠 종목이기도 한데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일회성 게이트볼 대회가 아닌 리그 방식으로 약 4개월간 게이트볼 리그를 운영했습니다.

Q. 도봉구체육회가 종목 협회 신설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종목 단체가 함께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갈증이 있는 종목이 분명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목을 혼자서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 12월에 신규 종목 단체로 맨발걷기협회가 들어섰습니다. 생활권과 가까운 도시 숲을 찾아 맨발로 걷는 동호인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 추세를 따라 경북 포항시, 경기 안산시 등 맨발 걷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많아졌고요. 특별한 장비 없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봉구에는 북한산과 도봉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외에도 당구연맹, 댄스스포츠연맹을 설립해 구민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Q. 취임하시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은 민선 2기 동안 도봉구체육회장으로 계시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요?

국기원이 방학동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동에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아레나가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2년 9월에 창단한 도봉구 브레이킹 실업팀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브레이킹 종목 최초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의 발전과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도봉구체육회도 힘을 보태 도봉구 하면 스포츠 선진구, 스포츠 선진구 하면 도봉구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치구체육회들이 동반자가 돼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

‘2023 서울특별시 체육인의 밤’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12월 20일(수)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H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2023 서울특별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체육회-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공동 주최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서울시 체육인 약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시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빛내 주셨고, 바로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에 실 틈도 없이 연속 출전해 종합 2위의 과업을 달성했다”며 “서울시 체육인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선수와 시민이 같은 마음으로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이어진 환영사에서 “서울시 체육인들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스포츠는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이 걷는 길에서 흘릴 땀이 서울시민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대상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종목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서울시청 체조팀의 김한솔 선수 수상(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 남녀선수상에는 노민규(수영, 경기고), 윤지수(펜싱, 서울시청), 최우수단체상에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남자), 서울시설공단 불링부(여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체육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서울특별시장상 89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40명, 서울특별시체육회장상 69명을 시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세훈 시장 좌측 두 번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오세훈 시장 우측 첫 번째) 등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이 서울시를 상징하는 에스 세례모니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12월 5일(화) 동보성(강남점)에서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 결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서울시 선수단 참가 결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참가 결과 및 임원 사임 보고 등 4건이 보고됐습니다. 심의 사항으로는 마케팅규정 제정(안), 정관 개정(안), 가입탈퇴규정 개정(안), 평가위원회규정 개정(안),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정 개정(안) 및 임원 보선(안) 등 7가지 안건이 심의됐습니다. 이후 기타 사항에서는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7회 서울-북경 스포츠 친선교류대회 개최

스포츠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27회 서울-북경 스포츠 친선교류대회'가 11월 2일(목)부터 11월 9일(목)까지 8일간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친선교류대회는 장화 북경시체육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핸드볼, 양궁, 배드민턴 종목 43명의 선수단이 서울시 선수들과 종목별 합동 훈련과 3차례 친선경기를 치르며 상호 간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전문 선수 육성 및 체육학교 운영 시스템을 공유했으며 서울의 문화·볼거리·먹거리 등을 체험하는 문화 교류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환영 만찬에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과 북경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1100여 명의 선수가 양 도시를 다녀갔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북경시에서 열리는 다음 대회는 럭비, 레슬링, 펜싱 3종목의 서울시 선수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2023 서울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서울시청 조명우 준우승



11월 12일(일) 태릉선수촌 승리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결승에서 조명우(서울시청)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명우 선수는 월드컵 통산 12승의 강호 에디 맥스(벨기에)를 결승에서 만나 끈질기게 추격했으나 50-4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한편 조명우 선수는 이번 대회 준우승 성적을 반영한 성적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탈리아의 자네티 선수와의 격차를 68점으로 벌리며 랭킹 1위를 수성했습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단 포상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10월 30일(월) 서울특별시체육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서울시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청 펜싱 윤지수·홍서인·홍하은, 체조 김한솔, 태권도 이다빈, 자전거 이해진·민경호, 클라이밍 서채현, 핸드볼 송지영·조수연·정진희·윤예진 선수 및 종목별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속으로 펜싱 구본길·김장환·임철우, 수영 허연경·이은지 선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연이어 출전해 우리나라와 서울시를 빛내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9th Asian Games Hangzhou 2022

2023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교육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서울특별시 속초연수원에서 10월 31일(화)부터 1박 2일간 '2023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직무교육은 회원종목단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및 도수 치료에 대한 강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우수 단체 격려, 영랑호 수릿길 문화탐방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회원종목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유관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단체 뉴스

서울특별시바둑협회, 2023 서울특별시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 개최



서울특별시바둑협회(회장 장학재)는 12월 3일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서울특별시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023 서울시협회장배 바둑대회는 여성단체전, 일반단체전, 시니어단체전으로 치러진 성인부와 유치부를 포함한 어린이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성인부 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내셔널리그에서 선수



로 활동했던 유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전국대회를 방불케 하는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학재 서울시바둑협회장은 "모든 참가 선수의 질서 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라며 "매년 바둑 동호인들이 증가하는 만큼 2024년에도 크고 작은 자치구별 대회를 개최해 서울시민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2023 서울시 스포츠재능나눔 소프트테니스교실 개최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이상배)는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매주 주말 2시간씩 수락산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에서 115명의 참가자들과 '2023 서울시 스포츠재능나눔 소프트테니스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서울시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한 이번 소프트테니스교실은 북서울 지역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노원구소프트테니스협회의 전 국가대표 선수 및 현 전문체육 지도자들의 강습으로 진행됐으며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행수업과 미니게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기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



테니스볼팀 감독과 선수들의 원포인트 강습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배 서울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재능나눔 교실을 통해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동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 2023 영등포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영등포구청의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 및 유망주 발굴을 위한 유소년 축구대회를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세 어린이와 초등학교 1~2학년층을 대상으로 24개 팀, 총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선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포스FC팀, 난우FC, 영등포구스포츠클럽팀이 각각 유치부와 초등 1·2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대회 및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청 보디빌딩팀 이신재, 2023 IFBB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 75kg 우승

우리나라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단이 세계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IFBB:International Bodybuilding&Fitness Federation)에서 주최한 '2023 IFBB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종합 2위에 입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디빌딩협회(회장 박재원)는 "우리나라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스페인 산타수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보디빌딩 -75kg에서 우승한 서울 소속 이신재(광진구청) 선수와 게임즈클래식보디빌딩 -175cm에서 3위를 차지한 고찬경(헬스토피아) 선수가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컬링연맹, '2023 서울특별시 컬링인의 밤' 개최

서울특별시컬링연맹(회장 감병서)은 12월 16일 태릉컬링장에서 '2023 서울특별시 컬링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컬링대회' 상위 입상팀에 대한 시상과 2023년 서울시컬링연맹을 빛낸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감병서 서울시컬링연맹회장은 "전용구장이 없는 우리시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수와 지도자가 합심하여 얻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며 격려했습니다.



표창내역

꿈나무 대표	김하연, 김아윤, 조연우, 김시영, 박성욱 코치(이상 한양초)
중등부 청소년 국가대표	박건우, 문정호, 고도현, 김민석, 정장현 코치(이상 수명중)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믹스더블 국가대표	이지훈(서울체고), 이채원(세현고), 박만 코치, 이승행 코치(이상 청소년 국가대표 믹스더블 지도자)
믹스더블 국가대표	정병진, 김지윤(이상 서울시청), 양재봉 감독, 안진희 코치(이상 국가대표 믹스더블 지도자)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우승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2023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 461개(금142·은166·동153)의 메달을 획득, 총점 20만 6015점으로 종합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서울의 효자종목은 조정(8연패), 태권도(7연패), 육상과 농구(4연패), 수영(2연패)입니다. 2022년에 비해 크게 성장한 종목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전지훈련으로 실력을 향상시킨 론볼은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순위가 뛰어올랐습니다. 적극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으로 선수 풀을 확대한 남자 골볼은 아쉽게 4위에 머물렀지만 향후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영 김동빈은 이번 대회 유일한 세계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자 자유형 50m(S2)에 출전, 50초03으로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저우렌강(Zou, Liankang)이 세운 50초65를 넘어섰습니다. 대회 첫 참가에 활약을 보인 신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수영 윤

홍주(19)는 금메달 4개를 포함, 총 6개의 메달을 몰아 따며 앞으로의 성장세를 예고했으며 늦깎이로 테니스에 입문한 김의택(33) 또한 남자 단식(오픈)과 복식(오픈)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향저우 영웅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주정훈은 겨루기-80kg(K44, 지체장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펜싱 대표팀 만언니 조은혜는 대회 3관왕(여자 개인전 2등급 사브르, 플뢰레, 에페)에 올랐으며 역대 김형희도 여자 -61kg급(벤치프레스, 웨이트리프팅, 파워리프팅)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국내 최고 공격수 심선화 선수의 부상으로 힘든 경기가 예상됐던 여자 골볼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충남을 4대3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회 참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각유도 셋별 김동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김동훈(28, 예금보험공사)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각유도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각유도 남자 -73kg(J2)에 출전한 김동훈은 전남 윤상민과 경북 방성현을 모두

주기술인 양팔 엮어치기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날 개최된 단체전 4강은 멋진 승부였지만 경기에 3대2로 저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한 김동훈은 2021년도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무서운 신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4월 세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BSA)



유도 월드 그랑프리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을 향하고 있는 김동훈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서울 육상 박세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신기록 달성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박세경(35)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DB 여자 8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육상선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세경은 대학교 3학년 어느 날부터 강의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이후 급격하게 청각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종목은 수영이었지만 2년 전부터 육상으로 변경하며 800m 한국 신기록, 1500m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실력자가 됐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대단한 연습 벌레다. 하루 훈련량이 7시간 정도 되는데 정말 성실하게 모든 훈련에 임한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다”라며 육상 시작을 함께한 함연식 코치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세경은 “주 종목이 모두 장거리인 만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 같다. 남은 400m, 1500m 경기에서 종전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데플림픽도 기대해주시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패럴림픽 탁구 3연속 메달리스트 정영아,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서울특별시청 장애인탁구팀 정영아가 2023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 가운데 최고 영예인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집중의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정영아는 패럴림픽 탁구 종목에서 3연속 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탁구의 간판입니다. 정영아는 2023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청룡장을 목에 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은 우리나라 체육 위상을 높이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대통령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및 훈장을 수여합니다. 정영아가 받은 청룡장은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탁구는 삶 자체’이고 ‘탁구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한 정영아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금빛 희망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22 항저우 패러게임 서울시선수단 포상금 전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11월 2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시선수단 포상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와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정희영 부회장, 이장호 사무처장, 서울시선수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포상식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 더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선수단대상 금융교육 실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12월 5일 가든파이브웍스 컨벤션홀에서 서울시 소속 경기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로 올바른 금융 활동 병행이 어려운 경기인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와 민간(공공)기업 소속 장애인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자산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유도단 이성호 선수는 “평소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채무 관리나 금융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강사님들의 유쾌한 강의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빙상 종목... 많은 꿈나무가 피어나길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 박정상 회장

서울 빙상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빙상의 발전을 염원하고 이루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는 사람. 더 많은 이가 빙상 종목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사람. 박정상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만났다.

Q. 동계 스포츠의 계절이 왔어요. 2024년 2월에는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구요.

동계 종목이 꾸준히 치러지고 있지만 역시 겨울에 가장 활발하죠. 사이사이에는 전문·생활체육 부문의 각종 대회들이 열렸고요.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는 작년 11월부터 예선 대회들을 치르고 있어요. 이번 대회는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분산 개최하는 만큼 각 지역의 많은 분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2023년 11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서울특별시장배 빙상생활체육대회에 많은 시민이 참가했어요. 시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타 선수의 힘이 커요. 흔히 '김연아 키즈'라고 하죠. 피겨 승급 심사 접수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합병이라고 봐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학교체육 활성화도 빠질 수 없구요.

Q. 국제대회인 22-23 ISU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를 주관했어요. 앞으로 서울시에서의 국제대회 유치와 발전 가능성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서 7년 만에 열리는 대회였어요. 서울특별시의 지원 덕분에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같이 주관해서 치를 수 있었죠.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서울 빙상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선수 육성이 시급해요. 운동을 이어 나가는 꿈나무들이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믿어요.

박정상 회장의 빙상 종목을 향한 사랑은 오래전에 시작됐다. 어린 시절에 아이스링크장을 활주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에 함박웃음이 그려진다. 그날의 '박정상 어린이'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추대돼 현재까지 서울 빙상 발전에 힘쓰고 있다. ❄️

ZIGZAG QUIZ

지그-재그 낱말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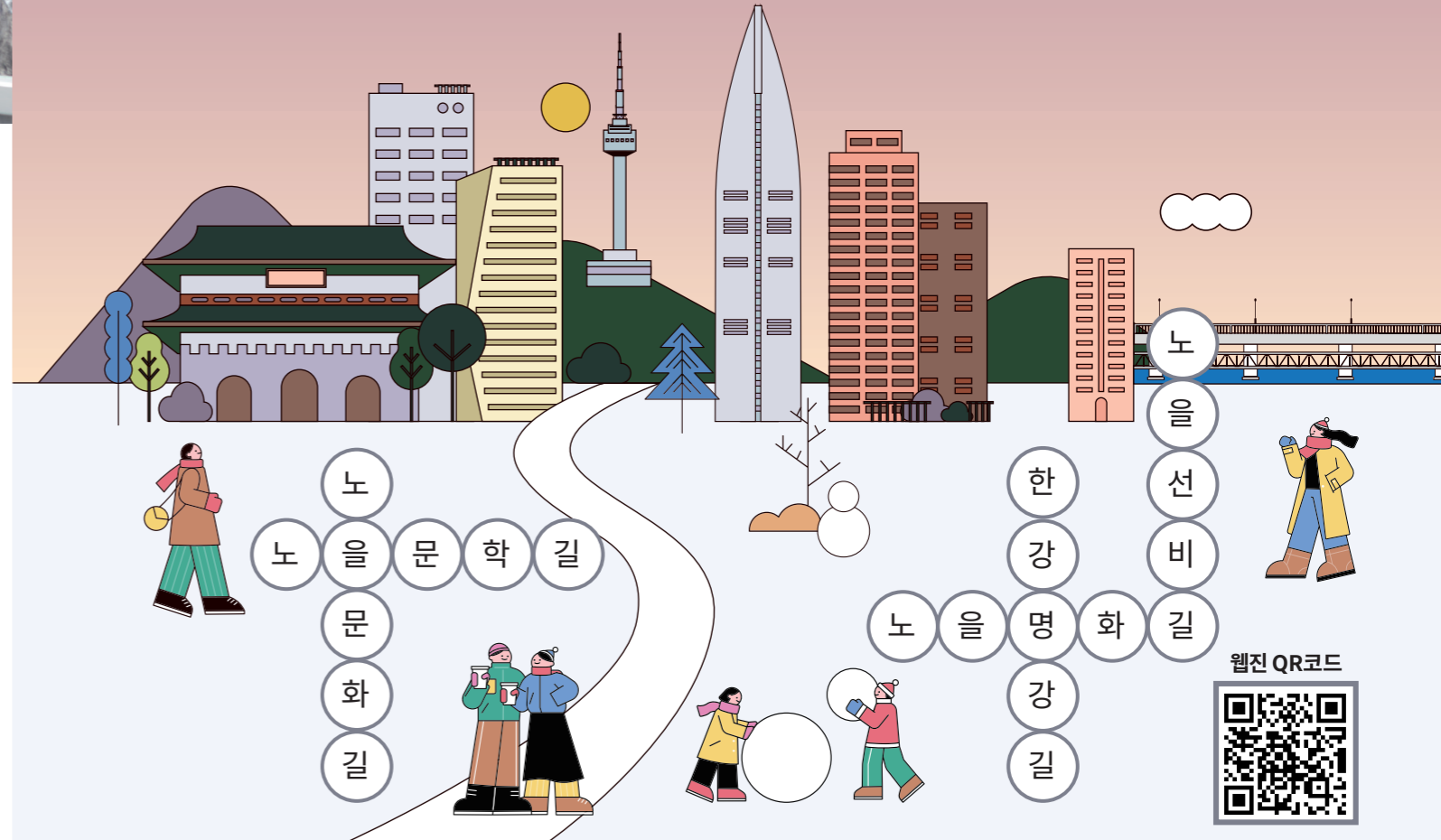
01+ 02월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서울스포츠> 01+ 02월호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퀴즈판에 01+ 02월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한강 솔래길'은 노을이 지는 시간에 여럿이 모여 함께 걷는 서울특별시의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키워드에 따라 1, 2, 3코스로 이뤄진 한강 솔래길 코스 중 '한강의 노을, 명화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명화에서 표현한 노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코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 솔래길 #노을 맛집



- ▶ **참여방법** 1. 2월 12일까지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에 정답을 제출한다.
- 2. 웹진 메인 화면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 3. 당첨자일 경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긴다.

- ▶ **지난호 정답** 암사습지생태공원
- ▶ **지난호 정답자** 최*송 황*연 김*경 배*정 장*희 김*림 최*지 박*수 전*욱 정*진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2월 중에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서울

PLACE AT SEOUL PLAZA

눈꽃광장

DECEMBER22

Seoul

Snowflake

Plaza

운영기간: 2023.12.22(금)~2024.02.11(일)

장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